

1. 난중일기(亂中日記)

임진년 4월 13일에 전쟁이 일어났다. 공은 전라좌수사가 되어 가서 1년동안을 두고 온갖 방비에 주력하며 전쟁 하루전인 4월 12일에 거북선을 완성하였으니 얼마나 숨가쁜 대조냐. 더우기 옥포, 당포, 한산, 부산 해전의 대승첩이 모두 이해에 있었다.

<역 사 주 석>

[1] 1월

초 1일(임술) 맑음. 새벽에 아우 여필(汝弼)과 조카 봉()과 아들 희()가 와서 이야기했다. 다만 어머니를 떠나서 두번이나 남도에서 설을 쇠니 간절한 회포를 이길 길이 없었다. 병사(兵使)의 군관(軍官) 이 경신(李敬臣)이 병사의 편지와 설 선물과 또 긴 편전(片箭)등 여러가지 물건을 가지고 와 바쳤다.

초 2일(계해) 맑음. 나라의 제삿날이라 사무보지 않았다. 김인보(金仁甫)와 함께 이야기 했다.

초 3일(갑자) 맑음. 동헌(東軒)에 나가 별방군(別防軍)을 점고(點考)하고 각 고을과 포구에 공문을 적어 보냈다.

초 4일(을축)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보았다.

초 5일(병인) 맑음. 그대로 뒷동헌(後東軒)에서 공무보았다.

초 6일(정묘)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보았다.

초 7일(무진) 아침에는 맑더니 늦게쯤서부터 종일 눈비가 내렸다. 조카 봉이 아산(牙山)으로 떠났다. 전문(箋文)을 받들고 갈 남원(南原) 유생(儒生)이 들어왔다.

초 8일(기사) 맑음. 객사(客舍)동헌에 나가 공무보았다.

초 9일(경오) 맑음. 아침을 일찍먹은 뒤에 객사 동헌으로 나가 전문을 봉하여 올려 보냈다.

초 10일(신미) 종일 비 내림. 방답(防踏 * 여천군 돌산면)의 새 첨사가 들어왔다.

11일(임신) 가랑비가 종일 왔다. 늦게야 동헌에 나가 공무보았다. 이봉수(李鳳壽)가 선생원(* 성생원-先生院 여천군 율초)을 뜨는 데를 가 보고 와서 보고하되 [벌써 큰 돌 17덩어리에 구멍을 뚫었더라]고 했다. 서문 밖 해자가 네 발췌 무너졌다. 사심사립(沈士立)과 이야기 했다.

12일(계유) 굵은 비가 개지 아니했다. 식후에 객사 동헌에 나갔다. 본영과 각 포구 진무(鎭撫)들의 활쏘기 시험을 했다.

13일(갑술) 아침엔 흐렸다. 동헌에 나가 공무 보았다.

14일(을해)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본 뒤에 활을 쏘았다.

15일(병자) 흐리나 비는 오비 않았다. 새벽에 망궐례(望闕禮)를 드렸다.

16일(정축)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보았다. 각 고을 벼슬아치들과 색리(色吏)들이 인사차 왔단다. 방답의 병신 군관과 색리들이 병선을 수선하지 않기로 곤장을 때렸다. 우후(虞侯)가수(假守)들도 역시 검칙(檢飭)하지 않기를 이렇게까지 했으니 해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제한 몸 살찌울 일만 하고 이런 일을 돌아보지 않으니 앞날 일도 역시 짐작하겠다. 성밀에 사는 토병(土兵) 박몽세(朴夢世)가 석수랍시고 돌 뜨는 데로가서 이웃집 개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기로 곤장 80대를 때렸다.

17일(무인) 맑았으나 촉기가 겨울과 같았다. 아침에 순사(巡使) 남원반자(南原半刺)에게 편지를 보냈다. 저녁에 쇠사슬박을 구멍 뚫인 돌 실어 오는 일로 배4척을 선생원으로 보냈는데 김효성(金孝誠)이 거느리고 갔다.

18일(기묘)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보았다. 여도(呂島) 천자(天字) 배가 돌아갔다. 우등계문(優等啓聞)과 대가단가(代加單子)를 순영(巡營)으로 봉해 보냈다.

19일(경진)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본 뒤에 각 군대를 점고 했다.

20일(신사)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헌에 좌기(坐起)하여 공무보았다.

21일(임오)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보았다. 감목관(監牧官)이 와서 잤다.

22일(계미) 맑음. 아침에 광양 현각(光陽縣監 * 어영담(魚泳潭)이 보러 왔다.

23일(갑신) 맑음. 둘째 형님(요신(堯臣))의 제삿날이라 공무보지 아니했다. 사복시(司僕寺)에서 받아 와 기르던 말을 올려 보냈다.

24일(을유) 맑음. 맏형(희신(羲臣))의 제삿날이라 공무보지 아니했다. 순찰사(巡察使)의 답장을 보니, 고부(古阜 * 전북(全北)) 군수 이숭고(李崇高)를 유임하게 해달라고 장계를 올린 일때문에 평론(貶論)을 입어 사임장을 내었다고 했다.

25일(병술)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마친 뒤에 활을 쏘았다.

26일(정해)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마친 뒤에 흥양(興陽 * 배흥립(裴興立) 순천(順天 * 권준(權俊)) 두 원과 활을 쏘았다.

27일(무자) 맑음. 오후에 광양 원에 왔다.

28일(기축)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29일(경인)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30일(신묘) 흐리나 비는 오지 않았다. 따뜻하기 초여름 같았다. 동헌에서 공무를 마친 뒤에 활을 쏘았다.

[2] 2월

초 1일(임진) 새벽에 망궤례(望闕禮)를 드렸다. 안개비가 잠깐 뿌리다가 늦게는 개었다. 선창으로 나가 쓸만한 널판대기를 고르는데 때마침 망천 안에 피라미 떼가 몰려 들어 왔기에 그물을 쳐 2천여 마리를 잡았다. 창으로 굉장했다. 그대로 전선 우후(虞侯 * 이몽구)李夢龜))를 데리고 전선 위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봄 경치를 즐겼다.

초 2일(계사) 맑음. 동헌에서 공무보았다. 쇠사슬 건너 매는데 쓸 작은 돌 80여개를 실어 왔다. 활 10순(巡)을 쏘았다.

초 3일(갑오) 맑음. 새벽에 오후가 각 포구의 부정 사실을 조사할 일로 배를 타고 나갔다. 공무를 마친 뒤에 활을 쏘았다. 탐라(耽羅 * 제주도(濟州道)) 사람이 아들 딸 여섯 식구를 데리고 도망해 나와서 금오도(金鰲島 * 여천 군남면)) 대었다가 방답(防踏 * 여천군 돌산면) 순환선(循環船 * 경비선)에 잡혔다고 사환을 올려 보냈기로 문초를 받고 승평(昇平 * 순천(順天))으로 보내어 가두어 두라고 공문을 써 보냈다. 이날 저녁 화대석(火臺石) 4개를 실어 올렸다.

초 4일(을미)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마친 뒤 북봉(北峰 * 여수 종고산(鐘鼓山)) 연대(煙臺 * 신호대(信號臺)) 쌓는대로 올라가 보니 축대자리가 매우 좋아 무너질 리 만무했다. 이봉수(李鳳壽)가 부지런히 일한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종일토록 구경하다가 해질 무렵에 내려 와서 해자 구덩이를 돌아보았다.

초 5일(병신)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마친 뒤 활 18순을 쏘았다.

초 6일(정유) 맑으나 종일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순찰사의 편지 2장이 왔다.

초 7일(무술)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발포(鉢浦 * 고흥군 도화면 내발리) 만호(萬戶)가 부임하였다는 공문이 왔다.

초 8일(기해) 맑으나 또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이날 거북선에 쓸 돛배 29필을 받았다. 정오에 활을 쏘았다. 조이립(趙而立)과 변존서(卞存緒)가 자웅을 겨루었는데 조가 이기지 못했다. 우후가 방답(防踏)으로부터 돌아오더니 방답첨사가 방비에 진력하더라고 극찬하여 말하였다. 동헌 뜰에 화대(火臺) 돌기둥을 세웠다.

초 9일(경자) 맑음. 새벽에 쇠사슬 꺾 긴 나무를 베어 오는 일로 이원룡(李元龍)에게 군사를 인솔시켜 두산도(斗山島 * 돌산도(突山島))로 보냈다.

초 10일(신축) 안개비가 오면서 개었다 흐렸다 했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김인문(金仁問)이 순찰사영(巡察使營)에서 돌아왔다. 순찰관의 편지를 보니 통사(通事 * 통역관)들이 뇌물을 많이 받고 중국(* 명나라)에 무고하여 군사를 청하는 일이 있도록까지 했을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우리가 함께 탄 뜻이 있는가 의심하게 했으니 그 흉악스러움은 참으로 이를 길이 없었다. 통사들이 이미 잡혔다고는 하나 해괴하고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었다.

11일(임인) 맑음. 식후에 배에 나가 새로 뽑은 군사들을 점고했다.

12일(계묘) 맑고 바람도 잦다. 식후에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고 해운대(海雲臺 * 여수시 동북쪽)로 옮겨 앉아 활을 쏘았다. 침렵지(沈獵稚)를 구경하는데 무척 조용했다.

13일(갑진) 맑음. 우수사(右水使 * 전라 우수사 이억기(李億祺)의 군관이 왔기로 살대 큰 것, 중간것, 백개와 쇠 50근을 보냈다.

14일(을사) 맑음. 아산(牙山 * 어머니) 문안차 나장(羅將) 2명을 내어 보냈다.

15일(병오) 비바람이 몹시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보았다. 석수들이 새로 쌓은 해자구덩이가 너무 많이 무너졌으므로 벌을 주고 다시 쌓게 했다.

16일(정미)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본뒤에 활 7순을 쏘고 친구번(新舊番) 군사들을 점고했다.

17일(무신) 맑음.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를 보지 아니했다.

18일(가유) 날이 흐렸다.

19일(경술) 맑음. 순시를 떠나 백야곶(白也串 * 여천군 천양면) 감목관(監牧官) 있는 곳에 이르니 승평(昇平 * 순천) 부사(* 권준(權俊))가 그 아우를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기생도 왔다. 비 온뒤라 산꽃이 활짝 피어 좋은 경치를 형언하기 어려웠다. 저물어서야 이목구미(梨木龜尾 * 여천군 화양면 이목리)로 와를 배를 탔다. 여도(呂島 * 고흥군 점안면 여호)에 이르니 영주 원(瀛州 * 흥양 현감 배흥립(裵興立)과 여도 권과(權管 * 황옥천(黃玉千)이 나와 맞았다. 방비를 검열했다. 흥양원은 내일 제사가 있어 먼저갔다.

20일(신해) 맑음. 아침에 온갖 방비와 전선을 점고해 본즉, 모두 새로 만들었고 무기도 얼마쯤 완비되어 있었다. 늦게 떠나서 영주(瀛州 * 고흥)에 이르니 좌우의 산꽃과 들가의 봄풀이 그림 같았다. 옛날에 영주(瀛州)가 있다더니 역시 이 같은 경치던가.

21일(임자) 맑음. 공무마친 뒤에 주인이 자리를 베풀고, 활을 쏘았다. 정 조방장(丁助防將 * 傑)도 와서 보았다. 황숙도(黃叔度 * 능성 현감(綾城縣監)도 와서 함께 술을 마셨다. 배수립(裵秀立)도 와서 함께 술잔을 나누며 즐기다가 밤이 깊어서야 파했다. 신흥헌(申弘憲)을 시켜서 술을 가지고 전일 심부름하던 삼반(三班) 하인들에게 갈라 먹이도록 했다.

22일(계축) 아침에 공부를 마친뒤 녹도(鹿島)로 갔다. 황숙도도 동행했다. 먼저 흥양전선소(興陽戰船所 * 고흥읍)에 이르러 배와 기구들을 친히 점검하고 그 길로 녹도로 가서 바로 새로 쌓은 문루(門樓)위로 올라가 보니 경치의 아름다움이 군내에서는 으뜸이었다. 만호(萬戶)의 애쓰는 정성이 안 미친 곳이 없었다. 흥양 원과 황능성(黃綾城)과 만호와 함께 취하도록 마시고 또 겸해서 대포 쏘는 것도 보았다. 촛불을 밝힌 뒤 이숙해서 파했다.

23일(갑인) 흐림. 늦게 출발하여 발포(鉢浦 * 고흥군 도화면 내발리)에 이르자 역풍이 크게 불어 배가 갈 수 없었다. 간신히 성 머리에 대었고 배에서 내려서는 말을 탔다. 비가 몹시 쏟아져 일행 상하가 모두 꽃비에 젖은 채 발포에 들어서니 해는 이미 저물었었다.

24일(을묘) 가는 비가 온 산에 내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비를 맞으며 길을 떠나 마북산(馬北山 * 고흥군 포두면) 밑 사량(沙梁)에 이르러서 배를 타고 노질을 재촉하여 사도(蛇渡 * 점안면 금사리)에 이르니 흥양원이 벌써 와 있었다. 전선을 점검하고 나니 날이 저물었으므로 눌러 유숙했다.

25일(병진) 흐림. 여러가지 전쟁 방비의 결함이 많으므로 군관과 색리(色吏)들에게 벌을 주고 첨사(僉使)를 잡아 들이고 교수(敎授)는 내어 보냈다. 방비가 다섯 포구중에서 가장 못하건만 순찰사가 표창하는 장계를 올렸기 때문에 죄상을 검사하지 못하니 참으로 기가 막혀 웃을 일이다. 역풍이 크게 불어 배가 떠날 수 없으므로 눌러 유숙했다.

26일(경사)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개이도(介伊島 * 추도(楸圖) 싸리섬)에 이르니 여도(呂島 * 고흥군 점안면 여호리) 배와 방답(防踏 * 돌산면) 마중배가 나와 기다렸다 날이 저물어서야 방답에 이르러 공사례(公私禮)를 마친 뒤에 무기를 점고하였다. 긴편전(長片箭)은 하나도 쓸만한 것이 없어 참으로 딱했으나 전선은 조금 완전하니 반가웠다.

27일(무오) 흐림. 아침 점고를 마친 뒤에 북봉(北峰)으로 올라가 지형을 살펴보니 따로 떨어져 외롭고 위태한 섬이라 사방으로 적을 받게 되었고 성과 못 역시 지극히 엉성하여 참으로 걱정스러웠다. 첨사가 애는 썼으나 미처 시설을 못했으니 어찌하랴. 느지막이 배를 타고 경도(京島 * 여천군 화정면)에 이르니 여필(汝弼)과 조이립(趙而立)과 군관 우후(軍官虞侯)들이 술을 싣고 나와 함께 즐기다가 해진 뒤에야 본청으로 돌아왔다.

28일(기미)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마친 뒤에 활을 쏘았다.

29일(경신) 맑으나 바람이 세게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순찰사의 공문이 왔는데 중위장(中衛將)을 순천(順天)원으로 갈았다 하니 한심한 일이다.

[3] 3월

초 1일(신유) 망궐례(望闕禮)를 드렸다. 식후에 별방군(別防軍)과 정규병을 점고하고 하번군(下番軍)을 점고하여 놓아 보냈다. 공무를 마친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초 2일(임술) 흐리고 바람이 불었다.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하지 아니했다. 승군(僧軍) 백명이 돌을 주웠다. 【주】

【주】 나라 제삿날-중종 장경왕후 윤씨(中宗章敬王後尹氏) 제삿날

초 3일(계해) 비. 저녁내 비가 왔다. 오늘은 명절이건만 비가 이렇게 와서 답청(踏青)도 할 수 없었다. 조이립(趙而立) 우후(虞侯) 군관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동헌에서 술을 나눴다.

초 4일(갑자) 맑음. 아침에 조이립을 전송하고 객사 대청에 나가 공무를 마친 뒤에 서문밖 해자 구덩이와 성벽을 더 올려 쌓는대를 순시했다. 승군(僧軍)들 돌 줍는 것이 성실하지 못하므로 우두머리를 잡아다 매를 때렸다. 아산(牙山) 문안갔던 나장(羅將)이 들어왔다. 어머님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들으니 다행 다행이다.

초 5일(을축)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군관들은 활을 쏘았다. 저물녘에 서울갔던 진무(鎭撫)가 돌아왔다. 좌의정(左議政 * 유성룡(柳成龍))이 편지와 [증손전수 방략](增損戰守方略)이란 책을 보내왔다. 그것을 본즉, 해전 육전과 불로 공격하는 전술 등에 관한 것에 낱낱이 말했는데 참으로 만고에 특이한 저술이었다.

초 6일(병인) 맑음. 아침 먹은 뒤 뜰에 나가 앉아 무기를 검열해 보니 활, 갑옷, 투구, 전통 환도등도 깨어지고 헐어서 볼썽없이 된 것이 많았으므로 색리(色吏) 공장(弓匠) 감고(監考)등을 처벌했다.

초 7일(정묘)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보고 활을 쏘았다.

초 8일(무진) 비. 종일 비가 왔다.

초 9일(기사) 비. 종일 비가 왔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보았다.

초 10일(경오) 맑으나 바람이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를 마친 뒤에 활을 쏘았다.

11일(신미) 맑음.

12일(임신) 맑음. 식후에 배 위로 나가서 경강선(京江船)을 점고했다. 배를 타고 소포(召捕 * 여수시 동쪽)로 나가다가 때마침 동풍이 몹시 불고 또 격군(格軍)도 없어 도로 돌아와 공장 동헌으로 와서 공무 보고 활 10순을 쏘았다.

13일(계유) 아침에는 날이 흐렸다. 순찰사에게서 편지가 왔다.

14일(갑술) 종일 큰 비가 왔다. 이른 아침에 순찰사(巡察使 * 이광(李洸))를 만날 일로 순천(順天)으로 갔다. 비가 몹시 쏟아져 길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간신히 선생원(先生院 * 성생원-省生院-여천군 율축면)에 이르러 말을 버리고 해농창평(海農倉坪 * 승주군 해룡면)에 이르니 길에 물이 석자나 피어 겨우 고을에 달았다. 저녁에 순찰사와 만나 막혔던 정회를 이야기 했다.

15일(을해) 흐린 채 가랑비가 오더니 저녁에야 개었다. 다락 위에 앉아 군관들을 시켜 편을 갈라 활을 쏘게 했다.

16일(병자) 맑음. 순천 원이 환선정(喚仙亭)에 술자리를 베풀었다. 또 겸하여 활도 쏘았다.

17일(정축) 맑음. 새벽에 순찰사에게 작별을 고하고 선생원에 이르러 말을 먹은 뒤 본영으로 돌아왔다.

18일(무인)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보았다.

19일(기묘)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보았다.

20일(경진) 비가 크게 쏟아졌다. 늦게야 동헌에 나가 공무보고 각 관방 회계를 밝혔다. 순천 관내를 수색 검토하는 일이 제기한에 미치지 못했기로 대장(代將)과 색리와 도훈도(都訓

導)등을 추궁 논죄하였다. 사도(蛇渡 *첨사 김완(僉使金浣))에게도 약속하는 공문을 보내었는데 혼자서 검색했다고 하며 또 반나절 동안에 내외나로도(內外羅老島 *고흥군 봉래면)와 대소평두(大小平斗)를 다 조사하고 그날로 몰아왔다고 하니 너무도 엉뚱한 거짓말이다. 그 사실을 조사하는 일로 흥양(興陽)과 사도(蛇渡)에 공문을 보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아침 내 누워 앓다가 늦게야 동헌에 나가 공무보았다.

22일(임오) 맑음. 성 북쪽 봉우리 밑에 도랑을 파내는 일로 우후(虞侯)와 군관 열 사람을 갈라 보냈다. 식후 동헌에 나가 공무보았다.

23일(계미) 아침에는 흐리고 저녁에는 맑았다. 식후에 동헌에서 공무보았다. 보성(寶城)에서 보내 올 판자를 아직 납품하지 않기 때문에 색리에게 다시 공문을 띄워 독촉하고 순천에서 사한 올려 보낸 소국진(蘇國進)에게 매 80대를 때렸다. 순찰사가 편지를 보내어 하는 말이 [발포권관(鉢浦權管)은 군사 거느릴 만한 재목이 못 되기로 처치하겠다.] 하였기에 아직 갈지말고 그대로 유임하여 방비에 종사하게 하라고 답장을 보냈다.

24일(갑신)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보지 아니했다. 우후가 수색하고 무사히 돌아왔다. 순찰사와 도사(都事)의 답장을 송희립(宋希立)이 함께 가져 왔는데 순찰사 편지 가운데 영남관찰사(嶺南觀察使 *김수(金粹))의 편지에 말하되 <도주(島主 *대마도주 종의지(馬島主 宗義智))의 공문에 진작 배 1척을 내어 보냈는데 만일 귀국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바람에 깨어진 것이리라>고 했더라는 것이다. 그 말이 극히 음흉했다. [동래(東萊)에서 서로 바라보는 바다라 그럴리가 만무한데 말을 이렇게 꾸며내니 그 간사함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주】 나라 제삿날-세종소헌왕후심씨(世宗昭憲王後沈氏)의 제삿날

25일(을유) 맑으나 큰 바람이 불었다. 동헌에 나가 공무마친 뒤 활 10순을 쏘았다. 경상병사(慶尙 兵使)가 평산포(平山浦 *남해군 남면 평산리)에 도착하지 않고 바로 남해(南海)로 갔다고 했다. 가는 서로 만나 보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는 뜻으로 답장을 보냈다. 새로 쌓은 성을 순시해 보니 남쪽이 9발쯤이 무너져 있었다.

26일(병술) 맑음. 우후와 송희립이 남해로 갔다. 늦게 동헌에 나가 공무를 마친 뒤에 활 15순을 쏘았다.

27일(정해) 맑고 바람조차 없었다. 아침을 일찍 먹은 뒤 배를 타고 소포(召浦 *경포(鏡浦)) 여수시 동쪽에 이르러 쇠사를 가로 건너 매는 것을 감독하여 종일토록 기둥 나무 세우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거북선에서 대포 쏘는 것도 시험하였다.

28일(무자) 맑음. 동헌에서 공무보았다. 활 10순을 쏘았는데 5순은 모조리 맞고 2순은 네 번 맞고 3순은 세번맞았다.

29일(기축) 맑음.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보지 아니했다. 아산으로 문안보냈던 나장이 돌아왔다. 어머님이 평안하시다는 소식 들으니 다행 다행한 일이다.

【주】 나라 제삿날-세조정희왕후윤씨(世祖貞禧王後尹氏)의 제삿날

[4] 4월

초 1일(경인) 흐림. 새벽에 망궤례(望闕禮)를 드렸다. 공무 본 뒤에 활 5순을 쏘았다. 별조방(別助防)을 점고하였다.

초 2일(신묘) 맑음. 식후에 몸이 몹시 불편하더니 차츰 더 아파 종일토록 밤새도록 신음했다.

초 3일(임진) 맑음. 기운이 어지러워 밤새도록 고통했다.

초 4일(계사) 맑음. 아침에야 비로소 통증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다.

초 5일(갑오) 맑더니 늦게는 비가 조금 왔다. 동헌에 나가 공무보았다.

초 6일(을미) 맑음. 진해루(鎭海樓)에 나가서 공무본 뒤에 군관들을 시켜 활을 쏘게 했다. 여필(汝弼)을 전별했다.

초 7일(병신)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보지 아니했다. 오전 10시께 비변사(備邊司)에서 비밀공문이 왔는데 영남 관찰사(嶺南觀察使 *김수(金粹))와 우병사(右兵使)의 장계에 의한 공문이었다.

【주】 나라 제삿날-중종문정왕후윤씨(中世文定王後尹氏)의 제삿날

초 8일(정유) 흐리되 비는 오지 아니했다. 아침에 어머니께 보내는 물건을 봉했다. 늦게 여필이 떠나가고 홀로 객창 아래 앉았으니 온갖 회포가 끝이 없었다.

초 9일(무술) 아침에 흐리더니 늦게는 맑아졌다. 동헌에 나가 공무보았다. 방응원(方應元)이 도방(到防)에 대한 공문서를 작성해 보냈다. 군관들이 활을 쏘았다. 평양현감(平陽縣監 * 어영담(魚泳潭))이 수색 검토에 대한 일로 배를 타고 왔다가 어두워서 돌아갔다.

초 10일(기해) 맑음. 식후 동헌에 나가 공무보았다. 활 10순을 쏘았다.

11일(경자) 아침에 흐리더니 늦게나 맑아졌다. 공무 본 뒤에 활을 쏘았다. 순찰사(* 이광(李洸)의 편지와 별록(別錄)을 군관(* 순찰사 군관 남간(南間))이 가져왔다. 이날 비로소 돛배(* 거북선에 사용함)를 만들었다.

12일(신축) 맑음. 식후에 배를 타고 거북선에서 지자(地字) 현자(玄字)포를 쏘아 보았다. 순찰사 군관 남공이 살펴보고 갔다. 정오에 동헌으로 옮겨 앉아 활 10순을 쏘았다. 관청으로 올라가면서 노대석(路臺石)을 보았다.

13일(임인)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본 뒤에 활 15순을 쏘았다.

14일(계묘)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 본 뒤에 활 10순을 쏘았다.

15일(갑진) 맑음. 나라 제삿날이라 공무보지 아니했다. 순찰사에게 보내는 답장과 별록을 써서 즉시 역졸(驛卒)을 시켜 달려 보냈다. 해질 무렵 영남 우수사(嶺南右水使 * 원균(元均))의 통첩에 [왜선 90여척이 와서 부산 앞 절영도(絶影島)에 대었다] 하였고 이와 동시에 또 수사(* 경상좌수사 박홍(朴泓)의 공문서가 왔는데 [왜선 3백 50여척이 벌써 부산포(釜山浦) 건너편에 와 대었다]고 하였기로 즉시 장계를 띄우고 순찰사와 우수사(* 전라우수사(전라右水使) 이억기(李億祺)에게도 공문을 보냈다. 영남 관찰사의 공문도 왔는데 역시 같은 사연이었다.

【주】 나라 제삿날-성종공혜왕후한씨(成世恭惠王後韓氏)의 제삿날

16일(을사) 오후 10시께 영남우수사(* 원균)의 공문이 왔는데 [크나큰 부산진이 벌써 함락되었다] 했다. 분하고 원통함을 이길 길이 없었다. 즉시 장계를 올리고 삼도(三道)에도 공문을 보냈다.

17일(병오) 날이 갓고 비가 오더니 늦게는 맑아졌다. 영남 우병사(嶺南右兵使 * 김성일(金誠一))가 공문을 보냈는데 [왜적이 부산을 함락시킨 뒤에 눌러 머무르면서 물러가지 않는다]고 했다. 늦게 활 5순을 쏘았다. 번을 그대로 누르는 수군과 번을 새로 드는 수군이 연달아 방비처로 왔다.

18일(정미) 아침엔 흐렸다. 이른 아침 동헌에 나가 공무보았다. 순찰사의 공문이 왔는데 [발포 권관(鉢浦權管)은 이미 파직되어 갔으니 가장(假將 * 임시대리)을 곧 정해 보내라] 했기로 나대용(羅大用 * 공의 군관)을 그날로 정해 보냈다. 오후 2시께 영남 우수사의 공문이 왔는데 [동래도 함락되었고 양산(梁山 * 조영규(趙英珪)) 울산(蔚山 * 이언함(李彦咸))의 두 원로 조방장(助防將)으로서 입성했다가 모두 패했다]고 하였다. 통분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병사(兵使 * 경상좌병사 이각(李珩))와 수사(水使 * 경상좌수사 박홍(朴泓))들이 군사를 이끌고 동래 뒤흘까지 이르렀다가 그만 즉시 회군했다고 하니 더욱 더 원통했다. 저녁에 순천(順天)군사를 거느린 병방(兵房)이 석보창(石堡倉 * 여천군 쌍봉면 봉계리 석창)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오지 않으므로 잡아다 가뒀다.

19일(무신) 맑음. 품방(品防)에 해자 파고 쇠사슬 구멍 뚫는 일로 아침에 군관을 정해보내고 나도 일찌기 아침을 먹은 뒤에 동문 위로 나가 품방 역사를 직접 독려했다. 오후에 상격대(上隔臺)를 순시했다. 이날 분부군(奔赴軍 * 입대하러 온 군사) 7백명이 역사에 점고를 맞았다.

20일(기유) 맑음. 동헌에 나가 공무보았다. 영남 관찰사의 공문에 [거센 적들이 몰아치므로 그 앞을 당적해 낼 도리가 없고 승리한 기세를 타고 마구 치달리는 품이 마치 무언지 경에 들어온 것 같다]하면서 내게 전선을 정비해 가지고 후원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21일(경술) 맑음. 성두군(城頭軍) 늘어 세울 일로 과녁터에 앉아서 명령을 내렸다. 오후에 순천부사(順天府使 * 권준(權俊))가 달려와서 약속을 듣고 갔다.

22일(신해) 새벽에 탐망도 하고 부정 사실도 조사할 일로 군관들을 내어 보냈다. 배응록(裵

應祿)은 절갑도(折甲島 * 절이도(絶爾島) 고흥군 금산면)로 가고 송일성(宋日成)은 금오도(金鰲島 * 여천군 남면)로 갔다. 그리고 이경복(李景福) 송한련(宋漢連) 김인문(金仁問)들은 두 산도(斗山島 * 돌산도(突山島)) 적대목(敵臺木) 실어내리는 일로 각각 군인 50명씩을 데리고 가게 하고 남은 군인들은 품방에 역사시켰다.

□ 23일부터 30일까지는 빠졌음.

[5] 5월

초 1일 수군들이 본영 앞 바다에 모두 모였다. 이날은 흐리되 비는 오지않았으며 남풍 몹시 불었다. 진해루(鎭海樓)에 앉아서 방답 첨사(* 이순신(李純信)) 흥양원(* 배흥립(裵興立)) 녹도만호(* 정운(鄭運))들을 불러 들였다. 그들은 모두 분격하여 제한 몸을 잊어 버리는 것이 과연 의사들이라 할 만하다.

초 2일 맑음. 삼도순변사(三道巡邊使 * 이일(李鎰))와 우수사(* 원균(元均))의 공문이 왔다. 송한련(宋漢連 * 공의 군관)이 남해로부터 돌아와서 하는 말이 [남해원(南海 * 기효근(奇孝謹))과 미조항 첨사(彌助項僉使 * 김승룡(金勝龍))와 상주포(尙州浦) 곡포(曲浦) 평산포 만호(平山浦萬戶 * 김축(金軸))들이 왜적의 소문을 듣고는 벌써 도망해 버렸고 무기 등 온갖 물자도 죄다 훔쳐 버려 남은 것이 없다고 했다.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오정때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진을 치고 여러 장수들과 함께 약속하니 모두 즐거이 나갈 뜻을 품는데 낙안(樂安 * 군수 신호(申浩))은 회피하려는 설사 물러나 피하려 한들 될 일인가. 저녁에 방답의 점입선 3척이 앞바다에 달았다. 비변사(備邊司)의 명령이 내려 왔다. 창평 현령(昌平縣令)이 부임하였다는 공식서한을 바쳤다. 이날 밤 군호(軍號)는 용호(龍號)라 하고 북명은 산수(山水)라 했다.

초 3일 가랑비가 아침내 왔다. 새벽에 경상 우수사의 답장이 왔다. 오후에 광양(光陽 * 어영담(魚泳潭))과 흥양(興陽)을 불러다가 함께 이야기하는 중 모두 분한 마음을 나타냈다. 본도 우수사(이억기(李億旗))가 수군을 끌고 와서 함께 약속했다. 방답의 판옥선(板屋船)이 점입군을 싣고 오는 것을 보고 우수사(* 원균(元均))가 온다고 좋아하였으나 군관을 보내어 알아보니 방답 배였다. 크게 실망했다. 조금 뒤에 녹도 만호가 보자고 하기에 불러 들였다. 그의 말이 [우수사는 오지 않고 왜적은 점점 서울 가까이 다가가니 통분한 마음 이길 길 없거니와 만약 기회를 늦추다가는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곧 중위장(中衛將 * 이순신(李純信))을 불러 내일 새벽 떠날 것을 약속하고 장계를 썼다. 이날 여도(呂島 * 고창군 점안면 여호리) 수군 황옥천(黃玉千)이 집으로 도망간 것을 잡아다가 목을 베어 군중에 높이 매어 달았다.

초 4일 맑음. 동이 트자 출발하여 바로 미조항(彌助項 * 남해군 삼동면 미조리) 앞 바다에 이르러 다시 약속했다. 우척후(右斥候 * 김인영(金仁英)) 우부장(右部將 * 김득광(金得光)) 중부장(中部將 * 어영담(魚泳潭)) 후부장(後部將 * 정운(鄭運))들은 오른쪽으로부터 개이도(介伊島)에 들어가 수도(搜討)하게 하고 다른 대장선들은 평산포(平山浦) 곡포(曲浦) 상주포(尙州浦)를 지나서 미조항에 대기로 했다.

□ 초 5일부터 28일까지는 빠졌음.

29일(무술) 맑음. 우수사(* 전라 우수사 이억기)가 오지 않으므로 혼자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새벽에 떠나 곧장 노량(露梁 * 남해군 설천면 노량리)에 이르러 미리 만날 약속한 곳에서 경상 우수사와 만났다. 왜적이 있는 곳을 물으니 적은 지금 사천 선창(泗川船倉 * 사천군 읍남면 선진리)에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바로 거기 가 보니 왜인들은 벌써 상륙해서 산위에서 진을 치고 배는 그 산 밑에 벌여 놓았는데 항진하는 태세가 아주 튼튼했다. 나는 모든 장수들을 독전하며 일제히 달려들어 화살을 빗발치듯 퍼붓고 각종 총통(統筒)을 바람우뢰같이 쏘아 보내니 적들은 두려워 물러나는데 화살에 맞는 자가 몇백명인지 알 수 없고 왜적의 머리도 많이 베었다. 군관 나대용(羅大用)이 탄환에 맞았으며 나도 왼편 어깨 위에 탄환을 맞아 등으로 뚫고 나갔으니 중상에는 이르지 않았다. 활군과 격군 중탄환 맞은 사람이 또한 많았다. 적선 13척을 불태우고 물러 나왔다.

[6] 6월

초 1일(기해) 맑음. 사량(蛇梁 * 통영군 원량면) 뒷 바다에서 진을 치고 밤을 새웠다.

초 2일(경자) 맑음. 아침에 떠나 바로 당포(唐浦 *통영군 산악면 미륵도 당포) 앞 선창에 이르니 적선 20여척이 벌여 정박했으므로 둘러싸고 서로 싸움을 시작했다. 그 중의 큰 배 1척은 크기가 우리나라 판옥선만한데 배위에는 누각을 꾸며서 높이가 두길이나 뒹직되었다. 그 누각 위에는 왜장이 우뚝 앉아서 고덕도 아니했다. 편전(片箭)과 크고 작은 승자 총통(大中勝字銃筒)을 퍼붓듯이 마구 쏘아 왜장이 화살에 맞아 떨어지자 모든 왜적이 한꺼번에 놀라 흩어졌다. 우리 편의 여러 장병들은 일제히 모여들어 쏘아대니 화살에 맞아 거꾸러지는 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남김없이 모조리 섬멸시켰다. 조금 뒤에 큰 왜선 20여척이 부산으로부터 바다에 깔려 들어오다가 우리 군사들을 바라보고는 도망쳐서 개도(介島 * 島 통영군 산양면)로 물러갔다.

초 3일(신축) 맑음. 아침에 다시 여러 장수들을 격려하여 개도를 협공하니 벌써 달아나 버리고 사방 아무데도 남은 놈이 없었다. 고성 등지로도 가 보고 싶었으나 우리 군대의 형세가 약하기 때문에 울분함을 참고 머물러 밤을 지냈다.

초 4일(임인) 맑음. 우수사(*이억기)오기만 고대하면서 이리저리 생각하며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정오에 우수사가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돛을 달고 나타났다. 진중 장병들이 기뻐 뛰지 않는 이가 없었다. 군사를 합치고 약속을 거듭한 뒤에 착포량(鑿浦梁 *통영군 산양면 당동리)에서 잤다.

초 5일(계묘) 아침에 떠나서 고성 당항포(唐項浦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에 이르니 왜의 큰 배 1척이 크기는 판옥선만한데 배위에는 누각이 우뚝하고 명색 전장이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중간배가 12척이요 작은 배가 20척이었는데 한꺼번에 무찔러 깨뜨리면서 비오듯 화살을 쏘아 붙이니 화살에 맞아 죽은 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왜장 머리는 7개를 베었고 남은 놈들은 육지로 올라가 달아났지만 그 수효는 얼마 되지 아니했다. 우리 군사의 기세가 크게 떨쳤다.

초 6일(갑진) 맑음. 전선의 동정을 살피며 거기서 그대로 잤다.

초 7일(을사) 맑음. 아침에 떠나 영등(永登 *거제도 장목면 구영리) 앞 바다에 이르러 적선이 울포(栗浦 *장목면 대금리)에 있다는 말을 듣고 복병선(伏兵船)을 시켜 가보게 했더니 적선 5척이 우리 군사 오는 것을 먼저 알고 남쪽 한바다로 달아났다. 우리 여러 배들이 일제히 뒤를 쫓아 사도 첨사 김완(蛇渡僉使 金浣)이 한 척을 온통 잡고 우후(虞侯 *이몽구)도 1척을 온통 잡았으며 녹도 만호 정운(鄭運)도 1척을 온통 잡았다. 그리고 왜적의 머리는 합하여 모두 36개였다.

초 8일(병오) 맑음. 우수사(*이억기)와 함께 일을 의논하면서 바다에서 잤다.

초 9일(정미) 맑음. 바로 천성. 가덕(天城. 加德)에 이르니 적선 1척도 없었다. 두번 세번 수색해 보고 나서 길을 돌이켜 당포로 와 밤을 지내고 새벽도 채 아니 되어서 출발, 미조항 앞 바다로 왔다. 우수사와 함께 잠시 이야기했다.

초 10일(무신) 맑음.

□ 6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 빠졌음.